배수진 치려는 후보 … 막아서는 黨지도부 … 경선 임박 땐 결행할 듯

6·4 지방선거 확대경 유력후보 의원직 사퇴 현실화 할까

기득권 포기로 감동 줘야 경선 승리 판단
이낙연·주승용·이용섭 등 시점 고민 중

6·4 지방선거 광주·전남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현직 국회의원들이 의원직 사퇴로 배수진을 치며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기득권 내려놓기 경쟁을 벌일 태세다. 하지만, 주요 후보들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의원직 사퇴 자제령을 내려 사퇴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원직 사퇴 문제는 지난해 말부터 지방선거 도전 국회의원들이 고민거리였다.

그러던 중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지난달 27일 전남지사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틀 전 김한길 대표에게 전화로 의원직 사퇴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특히 "그동안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은 국회의장이 사퇴서를 가지고 있다가 반려해 다시 의원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관행적으로 많았다"며 "후보경선이 끝나고 공천에서 탈락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사퇴의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사퇴를 실현하려 했던 후보는 지난달 20일 처음으로 전남지사 출마선언을 했던 같은 당의 이낙연 의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원은 그동안 측근들에게 "양손에 전남도지사직과 의원직이라는 떡을 들고 선거에 나서는 것은 전남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애초 출마 선언과 함께 의원직 사퇴를 할지 따로 사퇴카드를 쓸지를 고민하다가 후자를 선택하기로 했다. 이어 잡은 사퇴 시점은 지난 4일 예비후보 등록 시작과 오는 10일 등이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의원직 사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광주시장 출마를 공식선언하며 "김한길 대표를 만나 광주시장에 출마하게 되면 의원직을 버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소개한 뒤 "기득권에 연연하거나 집착하지 않겠다"며 "의원직 사퇴 생각은 변함이 없다. 별도의 기회를 잡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에서 0.45%포인트 차이의 아쉬운 패배를 한 가장 큰 원인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은 것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오던 차라 이번에는 결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남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박지원 의원도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이 아직 사퇴 결행을 못 하는 것은 당 지도부의 방침 때문이다.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인 지난 3일 노웅래 사무총장 명의로 소속 의원 126명에게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 당내 경선에서 공천 후보자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원직 사퇴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광주일보 4일자 3면〉을 보냈다.

그럼에도, 이들 중 몇 명은 의원직 사퇴를 결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이는 후보들이 국회의원과 시·도지사에 양다리를 걸치고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면하는 한편 기득권 포기로 유권자에게 감동을 줘야만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역단체장 당 경선을 준비 중인 한 후보 측 관계자는 9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의원직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하기엔 많은 제한이 있다"며 "특히 '안철수 신당'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펼쳐야 하는데 당의 방침을 무조건 따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윤여준 새정치추진위원회 의장의 책 '윤여준의 진심' 출간 기념 북 토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새정치 플랜' 내일 발표

선거제도 개혁 등 구체적 과제는 공개 않기로 … 감질나는 행보에 파괴력 의문

3월 창당을 앞둔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11일 신당이 추구할 '새 정치'의 큰 그림을 공개하기로 해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안 의원 측이 말하는 '새 정치'가 무엇인지 모호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런 만큼 이번에 공개될 새 정치 내용이 어느 정도 기성 정치권과 차별화 하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안 의원 측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11일 오후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새정치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새 정치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기조, 새 정치의 비전 등 '새정치 플랜'을 발표한다. 지난달 23일 목포에서 새정추가 추구하는 '지방정부 플랜'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콘텐츠를 공개하는 자리인 셈이다.

새정추는 토론회에서 한국 정치의 낡은 구조를 타파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펼쳐야 하며, 한국 사회에 넓게 퍼진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을 지키는 정치가 중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 플랜'의 초안을 마련한 김효석 공동위원장은 "한국의 낡은 정치는 정파적 이익에 매몰돼 국민을 보지 않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라며 "새로운 정치가 나아가는 방향은 어떻게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고 국민을 주인으로 돌려놓는 정치를 펼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추는 '새정치 플랜'을 위해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혁 등 구체적 과제도 준비중이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17일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대회를 마친 뒤 정강·정책위원회를 설치해 그 틀 안에서 완결성을 갖춘 뒤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추 측은 구체적 개혁 과제까지 공개하면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주제들에 관심이 쏠려 새 정치의 방향이나 비전 등 핵심 원칙들이 빛바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의 '새정치 마스터플랜' 제시가 또다시 미뤄질 것이라는 얘기 등 여러 관측이 무성했다.

아직 안 의원측이 신당 창당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안됐다는 방증이라는 분석과 함께 다양한 세력이 창당작업에 참여하다보니까 새 정치 세부내용에까지 아직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측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으로부터 당장은 '새정치 플랜'의 구체성과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면서 "하지만 그런 각오를 하고라도 '큰 틀'부터 명확히 밝혀 국민으로부터 평가받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개혁,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다당제 정착 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연대를 여야 정치권에 제의했다. 안 의원은 이날 새정추 회의에 참석해 "국익과 민생을 위해서는 어떤 협력과 연대도, 누구와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지만 정치공학적 선거연대는 없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더 정공법으로 제도적 개혁에 더 관심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 이름 빼니 여론조사 지지율↓
엇갈린 희비

최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이름을 뺀 여론조사에서 '새정치신당' 지지도가 눈에 띄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과 안 의원 측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지도부의 '호남 다지기'와 자체 혁신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며 미소를 짓는 반면, 새정치신당은 창당 작업과 지방선거 후보 선정을 마치면 다시 반등할 것으로 자신하면서도 내심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3~6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214명을 대상으로 벌인 휴대전화 RDD(임의번호 걸기) 방식의 2월 1주차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8%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새정치신당 지지도는 1월 2주차 31%에서 25%로 한 달도 안돼 6%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도는 1월 13%에서 2월 14%로 소폭 상승했다. 한국갤럽은 1월까지 '안철수 신당'으로 조사한 반면, 2월에는 '새정치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설문을 벌였다.

특히 광주·전라권 정당 지지도는 1월 민주당 31%, 안철수 신당 45%에서 2월에는 민주당 34%, 새정치신당 27%로 역전 현상을 보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김한길 대표의 설 연휴 호남·충청권 '세배투어'와 당의 혁신 노력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9일 기자 간담회에서 "정기국회 직후 호남에서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오른 데 이어 최근 세배투어 전후로도 지지율이 상승했다"면서 "지방과 수도권의 당 조직이 안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학교설립 60주년(1954~2014)
60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전남도, 기초의원 정수 조정 선거구획정안 도의회에 제출
광양·무안 1명 늘고 보성·영암 1명 줄고 완도 2개로 분할

일부 지역 주민 반발

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지역 기초(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일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전남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의원 정수를 조정하고 인구편차가 크거나 4명을 선출하는 섬 지역 선거구를 분할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의원정수 조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정 조례안에 따르면 광양, 무안은 의원 수가 1명씩 늘고 보성, 영암은 1명씩 줄어든다.

8개 읍면이 1개 선거구인 완도지역은 2개 선거구로 분할한다.

하지만,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의원 수가 증가하는 광양은 일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광양읍발전협의회는 광양읍을 포함한 '가 선거구'로 배정할 것을, 중마동협의회는 애초 안대로 '나 선거구'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선거구가 분할하는 완도는 획정안인 금일, 약산, 청산, 금당, 생일(나선거구)과 군외, 신지, 고금(다선거구)에서 약산과 청산을 다선거구로, 고금을 나선거구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도 내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90만7692명이며, 읍·면·동 수는 296개다. 22개 시·군별 의원 수는 비례의원을 포함 여수 26명, 순천 24명, 목포 22명, 나주 14명, 광양·고흥 12명, 해남 11명, 화순·신안 10명, 담양·보성·영암·완도 9명, 강진·영광·장성 8명, 곡성·구례·장흥·무안·함평·진도 7명이다.

한편, 이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광역의회 5개 선거구가 조정된 광주시의 경우 기초의원 수(68명)의 변동이 없고,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자유투어는 70억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자유투어
No.1 종합여행그룹 www.jaUtour.com
광주지점 062)371-3757
무안출발 장가계직항 (3/28~5/30까지 적용)
(무안출발 16시10분)-(무안도착 14시 50분) / 금요일 출발 3박 4일 /월요일 출발 4박 5일
[실속] 장가계 3박 4일 959,000원~
[품격] 장가계 3박 4일 1,059,000원~
[실속] 장가계 4박 5일 989,000원~
[품격] 장가계 4박 5일 1,089,000원~
제주 (OZ,KE) 호남지역출발 [1월~3월까지 적용]
선박패키지 149,000원~
항공+선박패키지 190,000원~
항공패키지 259,000원~
♥특별상품♥ 유류세포함 [2014.3.1~6.30 적용]
[품격] 푸켓 5일 (전통안마,팡아만씨카누,코끼리트래킹/3대특식포함) 799,000원
[품격] 푸켓 6일 (전통안마,팡아만씨카누,코끼리트래킹/3대특식포함) 949,000부터
[품격] 베트남 캄보디아 6일 -3월출발- 949,000원
[품격] 베트남 캄보디아 6일 -4월출발- 929,000원
♥허니문 기획상품♥ 경품증정 [2014.3.1~6.30 적용]
푸켓 (품격) 더비짓프라임풀빌라 1,630,000원~
(고품격) 마이카오드림투베드풀빌라 1,840,000원~
보라카이 (특가) 크라운리젠시디럭스 1,180,000원~
(품격) 리젠시프리미어 1,320,000원~
세부 (정통) 크림슨디럭스 1,310,000원~
(품격) 임페리얼오션디럭스 1,340,000원~
(고품격) 임페리얼오션원베드스윗 1,480,000원~
동남아 [선착순 특가 적용]
[베트남] 하노이+하롱베이+센레스토랑 포함 5일 499,000원~
[앙코르왓] 힐링 IN 캄보디아 5일 649,000원~
[싱가폴] 싱가폴/조호바루/바탐 5일 829,000원~
자유투어 ONLY
창사 20주년 상품
- 자유투어만의 특별가격 -
유럽 [선착순 특가 적용]
특급3박/샤프란볼루/돌마바흐체 터키 9일 1,390,000원~
고객만족1위/고객 송출1위 동유럽 6국 9일 1,590,000원~
발칸+크로아티아일주 5국 9일 1,890,000원~
중국 [홈쇼핑 大 HIT상품]
북경 쉐라톤호텔+VIP리무진 4일 369,000원~
성도/구채구/모니구+(낙산대불) 5일/6일 399,000원~
메리어트호텔 3박+풀옵션 상해 4일 399,000원~
일본 [방학특선 & 홈쇼핑 HIT]
[홈쇼핑HIT] 선상크루즈 미야자키+벳부 5일 279,000원~
[일본3대야경] 후쿠오카 아소 나가사키온천 3/4일 299,000원~
[NO옵션] 오사카/나라/교토 온천 3일 399,000원~
남태평양/미주 [특가로 즐기는 성수기]
호주 시드니 특급저비스베이+스노쿨링 6일 1,190,000원~
[실속 5 Star 항공] 호주 뉴질랜드 남북섬 10일 2,190,000원~
미서부+3대캐년+후버댐 8일 1,590,000원~
예/약/상/담 상무점 062)652-2974 전주점 063)284-6868 광양점 061)792-7222 나주점 061)332-7400 광천점 062)512-1713 충장점 062)251-6166